

탈모, 초기엔 약물치료...진행됐다면 모발이식



건강 바로 알기
탈모 모발이식과 시 로봇

정진욱

더모 헤어플란트 피부과 모발이식 클리닉 원장

호르몬·유전 영향 안드로겐탈모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진행 억제 모낭추출 '로봇 비절개 모발이식' 통증·흉터 없고 회복기간도 빨라

코로나(COVID-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2년여에 가깝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20대 여성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서 심한 탈모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된 적이 있었다. 코로나 감염이나 코로나 백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탈모가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와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탈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가 아니라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치열한 경쟁, 취업 준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탈모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탈모증 중에서도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안드로겐 탈모이다.

◇안드로겐탈모(남성형탈모, 여성형탈모)=안드로겐탈모는 남성호르몬과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데, 보통은 40~50대 시작하지만 드물게 사춘기 직후 나타나기도 한다. 남성은 양측 헤어라인 머리의 후퇴와 두정부 탈모가 우세하고, 여성은 앞줄 두

피 경계선은 잘 보전되면서 가운데 가르마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를 보이지만 완전한 대머리 탈모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안드로겐탈모의 치료는 2~5% 미녹시딜 용액도 효과가 많이 사용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을 중단하면 탈모가 다시 진행되는 단점이 있다. 안드로겐 생성이나 이용을 억제하는 경구피임약이나 전신적 항안드로겐 약물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남성형탈모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에 직접 영향이 없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인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를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비슷한 약리 작용을 가지는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약물은 탈모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꾸준한 복용이 필요하다.

◇모발이식수술=후두부처럼 탈모가 나타나지

않는 부위의 모낭(머리카락 뿌리)을 탈모 부위로 이식하는 것인데, 전에는 후두부 피부를 절개해서 모발이식 수술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두피를 절개할 필요가 없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의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더욱 긍정적인 발전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이 도입되어 더욱 간편하고 정확하게 모발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발이식수술은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진행되는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며, 외래에서 진행되는 수술로 입원은 필요 없다. 모발이식 수술 후 모낭의 생존율은 90%를 상회한다고 하니 시술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모발이식수술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시술임에 불구하고, 탈모 환자들은 수술 결과에 대한 걱정이나 수술 후 통증과 흉터 그리고 긴 회복 기간 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이식수술에 대한 환자분들의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발된 방법이 편지 모낭추출방식을 이용한 비절개 모발이식수술이다. 편지 모낭추출방식은 피부를 절개하거나 꿰매주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적으며, 실선 모양의 수술 흉터도 생기지 않고, 회복기간도 빨라져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특히 로봇 비절개 모발이식수술은 모발이식 후에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뒷머리에 실선의 흉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부담 없이 모발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모 헤어플란트 피부과 모발이식 클리닉' 정진욱 원장이 비절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모발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

탈모는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약물치료 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혹여 탈모가 진행된 경우라고 해도 모발이식수술을 통해서 탈모로 인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환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비절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모발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모발이식 수술을 고려중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시술을 담당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 '건강한 눈' 그림 당선작 전시회

밝은안과21병원, 27일까지 기아타이거즈 챔피언스필드



밝은안과21병원(대표원장 윤길중)이 오는 27일까지 기아타이거즈 챔피언스필드 중앙출입구에서 '제13회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를 진행한다. <사진> 밝은안과21병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은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이번 공모전

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눈'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바라본 우리의 눈을 자유롭게 그려 멋진 그림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당선작 전시회는 출품된 그림 중에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으로 총 14점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채희중 기자 chae@

“코로나19 최일선’ 전남대병원 의료진 응원합니다”

가수 영탁 팬클럽·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격려물품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 의료진의 노고에 최근 광주시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격려의 물품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병원에는 광주시의 위문품과 감사장이 전달됐고, 가수 영탁의 팬클럽 '영탁이 딱이야'와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가 격려물품을 각각 기

증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이용섭 시장을 대신해 문영훈 기획조정실장이 병원장실을 방문해 '모든 계절, 모든 순간이 의료진과 방역종사자 여러분 덕분입니다/당신이 진정하는 광주의 영웅입니다'라고 쓰여진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이 담긴 응원 꾸러미 120개를 전달했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모든 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장도 전했다.

또한 가수 영탁 팬클럽은 최근 캔들류 90박스(2700캔)를,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클라스 6개와 넥선풍기 1개를 각각 전달했다.

이밖에도 지난 달 전남대병원에는 초등학교생들의 격려 편지, 한 카페 사장의 캔커피 기부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이성 갑상선암, 혈액검사로 진행 예측 가능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정재호 내분비내과 교수가 논문을 통해 전이성 갑상선암의 진행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혈청 내 암 지표 중 하나인 'Cyfra 21-1'의 수치 변화로 갑상선암의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지표는 그동안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에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갑상선 전이예측을 받은 환자, 전이 없는 갑상선암 환자, 정상인 등을 대조군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 이 지표가 갑상선암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갑상선암 환자는 전이예측을 받은 뒤에도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한다. 이때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선 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단백질인 '티로글로불린'의 수치를 살펴보면, 수치 상승은 재발이나 전이를 시사한다. 그러나 티로글로불린이 검출되지 않는 환자도 있어, 이때

는 CT, 초음파, 전신 요오드 스캔 등 영상 검사를 진행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다.

정 교수는 "앞으로 영상 검사 없이 혈액검사에서 혈청 Cyfra 21-1을 지표로 갑상선암의 진행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암'(Cancers)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